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9.27.(제3773)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나를 붙드신 오른손

죽음을 생각하던 어린 날이 있었습니다.
‘폐결핵 6개월’. 그 말 앞에서
내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앞날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 이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씀 하나가 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울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중략)

돌아보니 나를 살린 것은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붙든 것은
사람의 손도 아니었습니다.
주의 오른손,
의로운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 나관호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18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례 송... 40장(1,3절) ...다 같 이 ※영 광 송..... 3장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례 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 78:3-4)

※경 배 찬 송..... 10장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까지 돌
보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
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 30번(시편 67편) ...다 같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
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
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 도.....조상현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현 금.....다 같 이

※봉 헌 송... 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분반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심유진 집사

구 약 | 잠 언 9:10

신 약 | 마 태 복 음 10:28-31

찬 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찬 양 대

증 언.....권오진 목사

『 혼으로 살면

혼나며 산다 』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복 의 선 언.....담임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목장모임

젊은이예배

오후 2:00, 중예배당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히브리서 강해 오석만 목사

수요성서연구

9월 30일(수)10:30, 손민승 목사

사무엘상·하 5 “그 손을 멈추십시오” 본문: 사무엘하 6장 1-15절 • 금 주 기 도 : 제7여선교회 • 다음주기도 : 김보라 권사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방 학	박지연 전도사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36	영 아 부	10
주 일 2 부 예 배	273	유 치 부	10
주일실시간방송예배	39	유 초 등 부	19
목 장 모 임	.	중 · 고 등 부	20
수 요 성 서 연 구	47	청 년 부	20
수요실시간방송예배	10	예 수 소 망 반	28
금 요 성 령 집 회	47	생 명 의 삶	13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50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합 계	502	합 계	120

헌 금

주 일 헌 금	1,773,000	감 사 헌 금	2,020,000
교회학교헌금	183,150	생 일 헌 금	200,000
월 정 헌 금	1,820,000	선 교 헌 금	20,000
십 일 조	9,090,000	특 별 헌 금	250,000
합 계 15,356,150원			

9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장춘기 문정이	정미애 이경희A 김성욱 이현희 안현수 심수현
안내위원	최명애	
강단헌화	유은애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숨을 구석에서 믿을 구석으로”

구 약 이 사 야 50:7-8

신 약 마 가 복 음 8:34-38

설 교 : 권 오 진 목사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저는 시골에서 처음 서울 아현동으로 이사왔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태어나서 처음 대중목욕탕을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아버지는 부목사로 바쁘시니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목욕탕을 가셨어요. 남탕을 갔을까요, 여탕을 갔을까요. 여탕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저기 몸을 씻겨주시는데, 저 앞에 한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데, 같은 반 여자아이인거예요.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운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시선을 피하려고 이 구석 저 구석으로 숨고, 어머니 뒤로 몸을 숨기며 얼굴을 죄인처럼 가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수치심과 당혹스러움은 지금도 제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치심의 뿌리: 하나님을 떠난 원죄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수치심이 단순한 심리적인 위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원죄(Original Sin)’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아담과 하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아무것도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평강(shalom)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탐욕이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과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라는 ‘숨을 구석’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저마다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안고, 그 수치를 가릴 ‘나뭇잎 치마’를 만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부끄러움의 대상이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 하는 부끄러움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잠언 6장 32-33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하나님은 죄의 열매가 사망이며, 음란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38a절)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죄와 음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바뀐 것이지요.

여기서 '부끄러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수줍어하거나 모르는 척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가치 없게 여겨 자신의 정체성에서 거부하고 떼어내려 하다"라는 거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렇게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 친구들과의 모임 한가운데만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슬그머니 숨기려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왜 이리도 무기력하게 세상의 시선 앞에 무너질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이 주는 영원한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당장의 쾌락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젊을 때 대박을 터뜨려 맘껏 즐기며 쿨하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도 어느 순간엔가 나도 모르게 그들의 꿈과 바램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쿨하게 즐기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 발에 와 걸리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자, 외롭고 힘든 자들과 함께하신 분, 나중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님은 내 꿈과 소망에 맞지 않습니다. 멋지게 살아보려 하는데 자꾸 발목을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의 욕망, 세상이 주는 쾌락에 끌리는 탐욕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저 넓은 길로 나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마음껏 즐겨보고 싶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돈 많이 벌어서 살 것 즐기며 살고 싶는데,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자꾸 내 발에 걸립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귀찮고 떼어내 버리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저희 첫째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학교가 끝나서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는데 저 멀리 딸아이가 친구들과 우르르 나오는 겁니다. 반가운 생각에 딸에게 달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아빠 오지마 저리가' 하면서 손사래를 치는 것입니다. '아니 저 녀석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싶어 멀찌기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제 마음에 큰 섭섭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아빠를 부끄러워하다니. 넌 집에 가서 보자...'

여러분, 어린 딸아이에게 느껴지는 서운함도 이럴진대,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 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런데 정작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예수님을 몰라라 하고 세상 뒤로 숨는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게까지 했는데, 네가 어찌 나를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 하지 않으실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수치와 절망뿐일 것입니다.

믿음은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눈치를 보며 예수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처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언뜻 보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완전히 망하는 길, '못 사는 길'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세상에서 아무리 땡땡거리며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은 사망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며 살았던 부자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았던 그의 인생의 최종 결과는 음부의 불꽃 속에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영원한 비극이었습니다.

반면, 이 땅에서는 비참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 한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당당함을 소유하십시오.

이사야 50장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자기 얼굴을 '부딪돌' 같이 굳게 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처럼 당당하게 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기웃거리던 '숨을 구석'에서 이제 당당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과 실패 때문에 숨을 구석만 찾아 살았던 그 어둡고 외로운 삶에서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가장 단단하고 확실한 '믿을 구석' 위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사도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가지를 실천하십시오.

1. 정체성의 공개 (Identity):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세상 눈치를 보며 신앙을 숨기는 '비밀 신자'의 삶을 청산하고, 식사 기도 하나부터 당당하게 드리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2. 부끄러움의 대상 수정 (Value Shift):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세상적 결핍이 아니라, 내 안의 죄와 불의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3. 겸손과 선행의 삶 (Gospel Impact):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 겸손과 따뜻한 사랑의 선행을 베풀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숨을 구석에서 나와 믿을 구석에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자랑스러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 금

십 일 조 헌 금 (오석만 김선아) 서지수 (김기석 나영임) (김명훈 김수미) (김주인 김춘강) (안홍순 양경화) (조순형 백문희) (황한규 유경희)
(김경행 전차월) (김동수 전순남) (김문기 정건화) (김병일 박경아) (김상길 정윤희) (김성점 이윤진) (김수녕 최정애) (배덕천
김유임 성진) 서성옥 오금복 이경희A 이용환 이윤선 이지혜B 이한나 전동순 (채의병 문정은) 황공자

월 정 헌 금 강정희A (고영천 임선영) 김도현 (박세광 구향모) 박정미 박희 (염봉진 곽동경) 윤영화 (이동현 이은주) (임수기 조미숙)
(정성규 심성희) 홍연재 (홍준일 김현주)

감 사 헌 금

(권오진 조고은)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선균 차경연) : 어머니를 하늘문 열어 맞이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석만 김선아) : 주의 은혜 아래 복된 날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범택 윤옥희) :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서태희 :故이규상 장로의 6주기 추도일을 맞이하여 묘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정희A :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손들 믿음의 삶과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이 백성 지켜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고영천 임선영) :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재성 이혜민 김민점) : 주님,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과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항상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 희 :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배덕천 김유임 성진) : 주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이서울 :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희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분 :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헌 이예은) : 도이의 첫돌을 허락하시어 양가 함께 축하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은주 :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공자 : 베풀어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 명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배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생 일 헌 금 이도이

선 교 헌 금 오혜리

특 별 헌 금 강단현화 서태희 (김동수 전순남) 유은애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목장 모임 : 오늘 예배 후, 목장별로 있습니다.
- 사랑나눔바자회 : 지난 주일 진행된 추석맞이 사랑나눔 바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모임안내

- 한나목장 : 오늘 12시 40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 10월 예배담당 :

주	주일		수	수요성서
	기도	성경봉독		
4	조영익	집례자	7	김보라
11	홍영기	집례자	14	교역자
18	김수미	집례자	21	소미숙
25	김영미	허상원	28	8,9지회

- 10월 예배위원 :

성찬준비 : 김영미 박범택

1부 안내위원 : 문정이 헌금위원 : 김유임 윤희열

2부 헌금위원 : 김동수 이운선 송대현 오수운 한애선

- 엠마오가는길(KOWE#125 남) : 10월 4일(주일) ~ 7일(수)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있습니다.

■ 교우동정

- 교직원 휴가 : 박지연 전도사(9/27 ~ 10/1)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10월 중 행사

- 첫단추기도회 : 4일(주일) 오후 2시, 대예배당
- 엠마오 가는길 : 4일(주일)~7일(수), 광림세미나하우스
- 목장모임 : 11일, 25일(주일)
- 총목자모임 : 11일(주일) 오후 2시, 찬양대실
- 여선교회 계삭회 : 13일(화), 연희교회
-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 : 17일(토), 한성고등학교
- 서대문지방 청년 풋살대회 : 17일(토), 휘닉스풋살장
- 유치부 야외예배 : 18일(주일), 주연팜
- 지역나눔 반찬봉사 : 24일(토)
- 목회세미나 : 27일(화), 방주교회

■ 금요성령집회(10월 2일)

찬	양	기드온 찬양단
설	교	“이미 기도응답은 시작 되었습니다” (다니엘 10:1-14) 권 오 진 목사

■ 주일아침예배(10월 4일)

대 표 기 도	조 영 익 장로
---------	----------

■ 주방봉사

- 이번 주 : 2초원
- 다음 주 : 4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 로 목 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 담 임 목 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 련 목 회 자 송호준
- 전 도 사 박지연
- 교 육 전 도 사 서지수

- 소 속 목 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 가 지 휘 김정희 김병일
- 반 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